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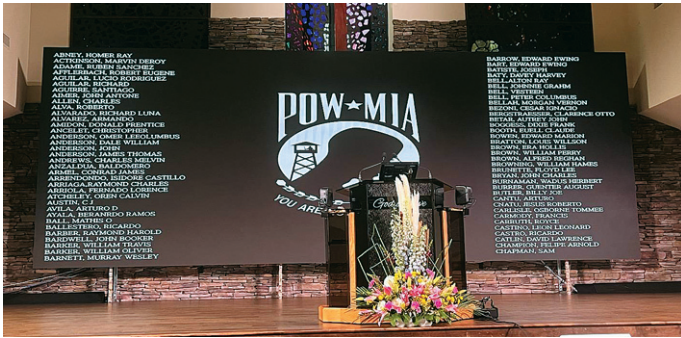
특집 _ 미국서 열린 2023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역대급 성과... 5억7천만 달러 수출 상담

기획 _ 재외동포 인구 2년 새 732만명서 708만명으로 감소

김건희, 재일한국부인회 차담회에서 “한일 협력 강화” 강조

화제 _ 우크라 고려인 돕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뜨거운 동포애 느껴”

미국 휴스턴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추모 행사...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아야”



‘2023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사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2023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11월 13일) 막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쁩니다.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주신 박진 외교부 장관님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님,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님 등 모든 귀빈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올해 포럼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번 포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같은 한국 문화의 성장은 재외동포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이 됐습니다.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설립된 것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과 재외동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전이자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한국계 정치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출범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는 10여년간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올해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이 이런 성장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8차 포럼 이후 세계 한인 정치인들에게 축하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회의원의 6선 성공, 실비아 루크 미국 하와이주 하원의원의 하와이주 부지사 당선, 조성훈(스탠 조)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통부 부장관의 온타리오주 장기요양부 장관 승진 및 다른 한인 정치인들의 재선과 첫 당선을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한국전쟁 때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모든 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한국계 정치인과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통찰, 그리고 미래세대가 각자의 나라에서 번창하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한민족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K-정신과 한국의 역사와 유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가 한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발전과 교류를 이어 나가는 기억에 남을 포럼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02 권두언 '2023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사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
- 04 특집 미국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역대급 성과... 5억7천만 달러 수출 상담
- 06 기획 재외동포 인구 2년 새 732만명서 708만명으로 감소
김건희, 재일한국부인회 차담회서 "한일 협력 강화" 강조
- 08 화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돕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뜨거운 동포애 느껴"
미국 휴스턴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추모 행사...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아야"
- 10 한민족 공감 미국 곳곳서 한글날 기념식... LA시의회 '한글날' 제정
미국서 열린 '한복의 날'... 앤디 김 "전통 찾기 노력 고무적"
- 12 글로벌 코리아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신임 회장에 박종범 상임이사
재일 호텔 대표 김현태 씨, 세계한인호텔협회 2대 회장에 선출
현덕수 신임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한인-고려인 화합 이룰 것"
- 14 유공 동포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김한용 전 회장, 동백장 수훈
- 15 주목! 차세대 플래시 방사선 이용 암 치료법 개발하는 한인 문이정 교수
- 16 지구촌 통신문 근대 산업 유산의 '빛'만 보고 '그늘' 외면하는 일본
- 18 동포소식 전국동포총연합회 12월 17일 발대식... 김호림 초대 총회장 취임 외
- 20 문화유산 웅장한 산·보석 같은 암자... 내셔널과 오세암
남한 제일 명산 설악산에 안긴 산사(山寺)와 암자들
- 22 OKA 뉴스 재외동포청- بانک, '세계 10위 경제국' 한국 홍보 영상 재외동포에 배포 외
- 24 동포 캘린더 종이문화재단-중국 선양한국국제학교 '한인 차세대 육성' 업무협약 외
- 25 기고문 재일동포 차세대의 민족 정체성 함양 방안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2023 코리아인 페스티벌-THE NEXT'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역대급 성과 5억7천만 달러 수출 상담

첫 해외 개최 행사에 역대 최대 31개국 7천800여명 기업인 참가

재외동포청이 해외에서 처음 개최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가 역대 최대 성과를 내며 마무리됐다.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를 주제로 10월 11~14일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최대 규모의 한상·기업 참가, 국내 대기업 첫 참여, 최대 수출 상담액 달성 등 다양한 실적을 냈다.

31개국에서 7천825명의 기업인이 참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이마트 등 한국 대기업의 첫 참여로 규모가 확대됐다. 또 인천·전북·경북·경남·제주 등의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참가 업종도 무역·상공업 중심에서 금융, 환경, 문화, 스마트 분야로 다양화했다.

535개 기업과 지자체 등이 650개 전시 부스를 선보였고,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한상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만7천200건의 미팅과 5억7천260만 달러 규모의 역대급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첫 참여 비즈니스 미팅·투자포럼·스타트업 경연 성황

이번 대회에는 미국 중소기업개발센터, 로스앤젤레스·애너하임·뉴욕·아칸소 등 6개 주 상공회의소 등 현지 기업인·단체도 참여해 한국 기업·단체와 비즈니스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첫 해외 개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리딩CEO 포럼에서는 고석화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 문대동 삼문그룹 회장,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각각 '태도가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 '세계를 품은 재외동포 경제인', '세계를 향한 도전,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

에 대한 공헌'을 주제로 성공 노하우와 경영철학을 참가자들에게 공유했다. 이 밖에 캐피탈 투자 포럼, 스타트업 경진대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도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단체와 동포단체 간 다양한 협력이 추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합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 양산상공회의소와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재외동포청장 “역대 최대 성과 내 해외 개최 긍정적 선례 남겨”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한인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내어 향후 해외 개최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상담이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병구 대회 조직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소 등이 한 팀이 되었기에 이룬 성과”라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회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549건, 8천600만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이번 기업전시회에 뷰티·미용,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위주의 중소기업 50개(60개 부스)로 구성된 'KBIZ관'을 설치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이충목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장은 “21년 만에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열린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전 세계 한상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세계한상대회' 대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칭 사용

앞서 지난 7월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상대회 명칭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변경했다. 재외동포청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한상대회운영위원회는 7월 21일 회의를 열어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명칭 변경을 결정했다.

중국 화상(華商)에서 착안해 한상(韓商)이란 명칭으로 대회를 시작한 초창기에는 무역·상공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4차산업, 정보기술(IT), 금융,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참가 업종이 다양해져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상대회운영위원위는 “동포기업과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기업도 참여하는 상생의 장인 만큼 좀 더 포괄적이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대회명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올해 대회는 '한상' 명칭에 익숙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세계한상대회'도 병기하기로 했다. **장**



2



3



4

1.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을 기념해 참석자들이 테이블 커팅식을 하고 있다.
2. 10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개막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피터원 KISS 그룹 이사, 하기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황병구 조직위원장, 노상일 운영본부장.
3.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마련된 기업전시장
4.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막식에서 환송사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인구 2년 새 732만명서 708만명으로 감소

코로나19로 귀국 늘어... 감소치 99%는 중국으로 24만명


재외동포 인구가 2년 전 732만명에 비해 3.3%(24만3천여명) 감소한 708만명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이런 현황이 담긴 '2023 재외동포 현황' (2022년 말 기준)을 공개했다. 동포청은 매 홀수 연도에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 현황을 파악한다.

현황은 인구조사, 이민국 자료 등 공식 통계와 공관 직접 조사, 재외국민 등록부 등 민원 처리 자료, 동포 단체 자료 등을 활용해서 추산·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81개국에 708만1천510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외국민은 246만7천969명, 외국 국적의 동포는 461만3천541명으로 직전 통계 대비 각각 1.73%인 4만3천552명, 4.15%인 20만81명이 감소했다. 재외국민 중에선 유학생이 15만 1천116명으로 2년 전에 비해 11.8%인 2만227명이 감소해 그 폭이 가장 컸다.

국가별로는 중국 지역 동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귀국자 등이 늘어 전체 감소의 98.8%인 24만695명이 줄어들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지역 재외동포도 2만907명 감소했다. 반면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코로나19 상황 호전 등으로 6.35%인 3만1천70명, 중남미 13.8%인 1만2천462명, 아·중동 5.54%인 1천544명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코로나 상황 호전 등으로 6.35%인 3만1천70명, 중남미 13.8%인 1만2천462명, 아·중동 5.54%인 1천544명이 증가했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1만5천419명), 중국(210만9천727명), 일본(80만2천118명), 캐나다(24만 7천362명), 베트남(17만 8천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 4천490명), 호주(15만 9천771명), 러시아(12만4천811명), 카자흐스탄(12만1천130명), 독일(4만9천683명)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8위였던 베트남은 2만1천792명이 늘어 5위로 세 단계 상승했고 러시아는 전쟁 여파로 4만3천715명이 줄어 6위에서 8위로 두 단계 하락했다.

'2023 재외동포 현황'은 책자로 발간돼 주요 정부 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되며,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구분	총계(명)	증감(명)	증감률(%)
재외국민			
영주권자	1,023,011	4,966	0.48
일반체류자	1,293,842	-28,291	-2.13
유학생	151,116	-20,227	-11.80
계	2,467,969	-43,552	-1.73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4,613,541	-200,081	-4.15

2023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구분	총계(명) (백분율(%))	증감(명)	증감률(%)
동북아	2,911,845 (41.12)	-257,442	-8.12
남아태	520,490 (7.35)	31,070	6.35
북미	2,862,781 (40.43)	-8,360	-0.29
중남미	102,751 (1.45)	12,462	13.80
유럽	654,249 (9.24)	-22,907	-3.38
아중동	29,394 (0.42)	1,544	5.54

김건희, 재일한국부인회 차담회서 “한일 협력 강화” 강조

유대영 중앙본부 회장 “일본서 한국 호감도 높아지는 것 피부로 실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월 11일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재일한국부인회) 간부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차담회를 열어 활동을 격려했다. 1949년 결성된 재일한국부인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중앙본부와 44개 지방본부에서 총 10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재일한국부인회는 지난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모국 연수를 계기 한국을 찾은 재일한국부인회 간부들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일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여사는 차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딸로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우리 동포사회와 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장한 사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일동포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국어 강의, 한식 교실, 전통 김장 체험, 지역 교류 축제 등 한일 우호와 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유대영 재일한국부인회 중앙본부 회장은 “최근 한일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자 히로시마현 본부 회장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최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데 대해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공동 참배는 한일관계 재정립을 통해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이었다”고 화답했다. **창**



1



2

1.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에서 이 단체 도쿄도본부 고문이자 중앙본부 회장인 최금분 할머니의 부인회 활동에 관한 발언을 듣고 있다.
2.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크라 고려인 돕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뜨거운 동포애 느껴’

모금으로 20만 달러 전달... 첫 한인 2세 · 최연소 회장으로 연임

“전쟁으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 살길이 막막한 이들이 희망을 품도록 돕는 일이라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죠.”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제임스 안(43)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장은 10월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려인을 도우면서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려인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화랑청소년재단과 함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한 달 만에 모은 6만5천 달러(9천만원)를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인 몰도바에 모여든 고려인 피난민에게 전달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모금했고 올해 4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고려인사회와 고려인학교인 정수리학교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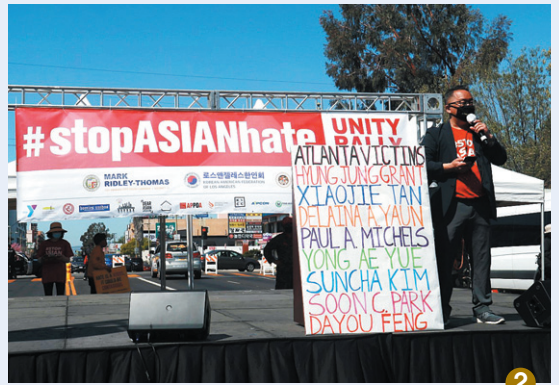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이 20만 달러(2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전한 그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빈 몸으로 피난 온 고려인들은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가기 위해서 수속 절차를 밟는 동안 먹고 잘 비용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지의 한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쟁 중인 곳을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궁금했다. 그는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와 함께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다가 성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의기투합해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다”며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낸 한인분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전할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피난처에서 만난 고려인은 모두 노인과 여성, 어린 아이들뿐이었다”며 “젊은 남성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간 상황으로 생사 확인을 못 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중학생 두 딸을 데리고 탈출한 미망인 고려인 여성에게 항공



1



2

료를 지원해 한국의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안식을 찾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기뻐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LA 한인들의 정부 지원 수령도 적극 도와

LA에서 식당업을 하던 그는 2018년부터 한인회 봉사를 시작했고, 2021년부터 2년간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선거에서 연임됐다. LA한인회 역사상 첫 2세 한인회장이며 최연소이기도 하다. 그는 “주류사회에서 자리 잡은 2세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한인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현지 한인들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자 역할에도 앞장섰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한인들에게 나온 지원금이 6천만 달러(811억원)에 달한다며 그는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든든한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자부했다. **창**

1. 언론과 인터뷰하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2. 2021년 3월 27일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휴스턴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추모 행사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아야”

한인교회연합회 · 목사회 공동 주최... 실종자 추모 행사는 처음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0월 22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실종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휴스턴 한인교회연합회·목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이 후원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추모예배는 이날 오후 4시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그간 미국에서 생존한 한국전 참전용사나 유해가 확인된 전사자 보은행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참전 실종자를 추모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전했다.

실종자들은 한국전 당시 전사하거나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유해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종자로 분류돼 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은 현재 약 7천 500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텍사스주 출신은 약 2천300명이라고 총영사관은 전했다.

이번 추모행사에는 텍사스주 경비대 E.A. 버디 그랜섬 준장과 휴스턴 군사위원회 유진 툴리치 회장,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인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담임목사는 “한국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주휴스턴총영사는 “생존한 참전용사 못지않게 ‘돌아오지 않은 영웅들’인 참전 실종자들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미한국전참전용사협회의 프레드 래시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비협조로 중단된 미군 유해 송환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텍사스주 출신 한국전 참전 실종자 명단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고, 한국전 참전용사 5인이 차례로 일부 실종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 모두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했다. **참**

1.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0월 22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 참전 실종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영호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앞줄 가운데)와 한국전 참전용사 등이 참전 실종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실종자 추모예배’ 중 게시된 실종자 명단

미국 곳곳서 한글날 기념식 LA시의회 '한글날' 제정

LA시티칼리지,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 설치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티칼리지(LACC · 총장 아마누엘 게브루)와 로스앤젤레스시가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LACC는 10월 5일(현지시간) 캠퍼스 내 제퍼슨홀에서 미국 공립대로는 처음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홀 입구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과 함께 한국어반 수강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알렸다. 이 대학 한국어반 수강생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막식에는 프랜시스코 로드리게즈 LA커뮤니티칼리지교육구(LACCD) 의장을 비롯해 김영완 LA총영사,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자 이석 황세손, 그의 양자이자 황실 후계자로 지명된 한인 2세 사업가 앤드루 이(한국명 이상민)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종대왕 동상은 이 황세손과 앤드루 이 후계자가 LACC에 전달한 기부금으로 제작됐다.

LA시의회는 10월 6일 오전 10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시의회 통과를 한인 존 이 시의원이 추진했다. LA시는 이에 따라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10월 7일에는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모니카 류)이 LA한인타운 마당물에서 타인종과 영어권 2~3세들을 위한 영어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행사를 열었다. 류 이사장은 “현지인들에게 한글을 잘 알리기 위해 행사를 연다”며 “붓글씨로 쓴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밀피타스시에서도 11년째 한글날 행사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소재 밀피타스시에서도 한글 사랑 행사가 11년째 이어졌다. 미주지역 한글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구은희)은 10월 1일 밀피타스시가 시립도서관 강당에서 한글 창제 580돌 기념식을 열어 ‘코리안 알파벳 데이(한글날)’를 선포하고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에블린 추아 부시장, 케빈 박 산타클라라시 부시장



1



2

1. 10월 5일 미국 LACC에서 캠퍼스에서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미주한국일보 제공)
2. 10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시 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코리안 알파벳 데이' 선포식 장면

등과 한인 단체장, 재단 산하 청소년 봉사단인 '카약' 단원, 학부모 등 12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추아 부시장은 '코리안 알파벳 데이'를 선언하고 시와 시의회에서 마련한 증서를 한국어교육재단에 전달했다. 기념식에 이어 한국학교 학생들의 한국 동요 공연과 궁중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또 위재국 한국어교육재단 초대 이사장이 훈민정음 서문을 낭독했고, 이현옥 · 이경은 학생은 한지에 인쇄된 훈민정음 서문에 '한글'이라는 글자와 본인의 이름을 써서 보여주는 시연을 했다. 이어 한글 쓰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한국문화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실리콘밸리 지역 산타클라라시 시의회도 10월 10일 한민족의 언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글날'을 선포하고 선포문을 한국어교육재단에 전달했다. **장**

미국서 열린 ‘한복의 날’ 앤디 김 “전통 찾기 노력 고무적”

상원 출마 선언한 앤디 김 · 현역 메넨데즈, 한인 사회에 ‘러브콜’



1.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마크 진너 시장(가운데)이 10월 14일(현지시간) 포트리에서 열린 ‘한복의 날’ 기념식에 한복 차림으로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2.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한복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모습

미국 뉴저지주(州)의 경제·문화 중심지인 포트리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 (10월 21일)을 앞두고 10월 14일(현지시간) 기념식이 열렸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해 선포한 주다.

이날 현지에는 오전부터 큰비가 내렸지만, 한인 사회 관계자와 현지인 수백명이 기념식에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현지 유력 정치인들도 앞다퉈 축하를 보내거나 직접 참석했다. 특히 내년에 치러질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한인 앤디 김 하원의원이 모두 축하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복의 날을 뉴저지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청소년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를 거론하면서 “한인사회에 전통 문화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을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규정한 그는 “뉴저지주를 지역구로 둔 첫 번째 아시아계 연방의원이자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영광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하면서도 뛰어난 한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유독 강조된 김 의원의 축사는 상원의원 선거라는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3선을 한 뉴저지 남부 지역구의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지역구 경쟁자 중에서는 김 의원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부각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상원의원 선거 지역구는 하원의원보다 훨씬 확장되기 때문에 한국계 등 아시아계 유권자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의 도전 상대인 메넨데즈 의원도 이날 축하를 보내는 등 한인 사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에서 열리는 한복의 날 기념식에 대해 한국의 관심도 커졌다. 이날 기념행사로 열린 한복 패션쇼에는 지난해 초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조선 시대 배경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남녀 주인공이 입었던 실제 한복이 공수됐다. 또한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기념 공연을 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뉴저지에서 한복의 날 기념일 제정을 이끈 AAYC의 브라이언 전 대표는 “뉴저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코리아한복’ (Korean Hanbok)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운동을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임 회장에 박종범 상임이사 “세계 경제 위기 속 월드옥타가 모국 발전 앞장서겠다”

세계 67개국 146개 도시에 지회를 둔 재외동포 최대규모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새 회장에 박종범(66) 월드옥타 상임이사가 선출됐다. 월드옥타는 10월 26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박 상임이사를 제22대 회장으로 뽑았다. 그는 총 256표를 얻어 36표를 얻은 권영현 후보를 220표 차로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당선 직후 “전쟁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국의 발전을 이끄는 데 월드옥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초창기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력이 강한 단체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박 당선자는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업해 유럽·러시아·중국 등 20개국에서 30여개 계열사를 두고 무역 등으로 1조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유럽 최대 한상(韓商)그룹을 일궈냈다.

그는 오스트리아 한인협회장과 한국-오스트리아 친선협회 부회장,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부의장 등을 맡았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으며, 장보고글로벌재단으로부터 ‘21세기 장보고 상’도 받았다. 박 당선자는 11월 1일 회장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일본 후쿠오카 베니키아칼튼호텔 김현태 대표, 세계한인호텔협회 2대 회장에 선출

“한국 호텔 인력 해외 진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세계한인호텔협회(OKHA·회장 정영삼)는 제2대 협회장에 김현태(66) 일본 후쿠오카 베니키아칼튼호텔 대표를 선출했다. OKHA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산하 통상위원회 소속 호텔 경영자들이 2017년에 창립한 단체다. 현재는 전 세계 3천여개의 한인 호텔과 1천500여개 호텔 관련 회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 수석부회장인 김 대표는 10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인더스트리얼 힐스 퍼시픽팜스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OKHA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뽑혔다. 그는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힐튼호텔을 거쳐 라마다호텔 총지배인을 지냈다. 이후 일본으로 유



학해 도쿄 센슈대에서 서비스마케팅으로 석사를, 경원대에서 국제서비스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일본에서는 IP시티호텔 총지배인을 거쳐 2013년 현재의 호텔을 인수해 자신만의 호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내외 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 호텔 인력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인 호텔경영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덕수 신임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한인-고려인 화합 이룰 것” 모스크바·사할린서 부동산 등 사업… 세계한민족회의 이사장직 병행

“한인이든 고려인이든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뿌리예요. 과거에 일부 갈등도 있던 했지만, 앞으로는 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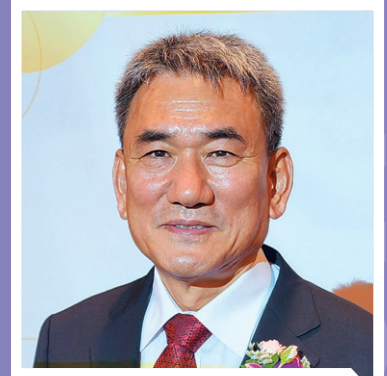
현덕수(64) 사할린한국한인회장은 10월 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언론과 만나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을 아우르는 회장이 된 만큼 양측과 소통하며 차별 없고 서로 포용하는 관계로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한 회장은 이틀 전 열린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김기수 키르기스스탄한인회장을 누르고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현 회장은 지난 9월에는 2년 임기인 제3대 세계한민족회의(KIC) 이사장에도 취임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내외동포정보센터가 전신인 세계한민족회의는 전현직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단체다.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은 1만5천명 규모인데 대부분 고려인이며,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등 이유로 정착한 교민은 150~200명 수준이다. 30여년간 사할린 지역에서 거주한 현 회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 고려인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민들의 처우가 열악한 측면이 있다는 말도 사할린 동포 사회 일부에서 나온다고 했다.

현 회장은 “사할린한국한인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인 관련 단체는 고려인 단체라고 볼 수 있다”며 “한때 교민단체와 고려인 단체 간 일부 갈등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봉합됐다. 더 매끄럽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산물 가공과 유통 사업을 하다가 러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린 현 회장은 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 아파트 건축, 부동산 개발, 호텔 건립 등을 업종으로 하는 SSD그룹을 설립했다. 현 회장은 매년 사할린(6개월)과 모스크바(3개월), 한국(3개월) 등을 오가며 사업체를 관리 중이다. 현재 SSD그룹의 연 매출은 1억 달러(약 1천349억원)에 달한다. **▶**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김한용 전 회장, 동백장 수훈

한국대사관 “동포사회 화합 이끌고 한국기업 적극 지원”

주 베트남한국대사관(대사 최영삼)은 10월 10일 김한용 전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에게 정부가 주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달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재임 기간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인 사회와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함께 539명의 현지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율 제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높은 신망을 바탕으로 한인사회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재외동포청은 검증을 거쳐 10월 5일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 훈포장을 받을 대상자 87명(단체 포함)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장\]](#)



최영삼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대사가 10월 10일 대사관에서 김한용(오른쪽) 전 코참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달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플래시 방사선 이용 암 치료법 개발하는 한인 문이정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종양학과 교수... 암세포 사멸 기작 연구 참여

“**정**상 조직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치료할 수 있는 페롭토시스(ferroptosis·철 의존 세포 사멸) 효과를 연구하는 동시에 항암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비소성 폐암에 대한 치료 방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종양학과 문이정(43) 교수는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 종양학 연구의 권위자 중 한명이다. 그는 현재 이 대학에서 초고속 방사선 치료 방법인 ‘플래시(FLASH) 방사선’을 이용해 새로운 암세포 사멸 기작(생물의 생리적 작용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인 페롭토시스와 종양자 및 플래시 방사선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이익재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와 정영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뉴바이올로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올해 보건복지부 글로벌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방한한 문 교수는 10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FLASH 방사선은 짧은 시간 안에 (밀리세컨드) 방사선 에너지를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에는 기존의 방사선과 동일한 세포 사멸 효과를 주는 반면, 정상 조직의 독성을 보호해주는 효과는 기존의 방사선 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급부상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대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박사 후과정과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거쳐 2021년 3월 옥스퍼드대 종양학과 의 그룹 리더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와 대학원생 강의, 석·박사생 지도 등을 수행한다. 그는 박사과정 때부터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생물학을 연구했다.

현재 연구하는 페롭토시스에 대해 그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분열과 성장을 하지만, 항상성 유지를 위해 철저히 조절되는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도 겪는다”며 “페롭토시스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지질, 특히 고도 불포화 지



문이정 영국 옥스퍼드대
종양학과 교수

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의 산화(lipid peroxidation)가 증폭되면서 독성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는다”고 소개했다.

페롭토시스는 기존에 알려진 다른 세포 사멸 기작과는 다른 특징이 있으며 특히 항암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암세포나 침윤, 혹은 전이성을 지닌 암세포를 선별해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페롭토시스가 암세포에서 특히 어떤 유전자에 의해 촉발되고, 진행되는지 생물학적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유전자를 통한 표적 치료제 개발과 환자 선별을 위한 지표 사용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암의 미세환경에 초점을 두고, 암의 저산소증(tumor hypoxia)에 의한 암 전이 및 대사 작용 조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립암센터에서 1년간 연구원 생활을 거쳐 미국 듀크 대 방사선 종양학과 박사, 스탠퍼드대 방사선 종양학과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문 교수의 남편 이재형 박사는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벤처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

근대 산업 유산의 ‘빛’만 보고 ‘그늘’ 외면하는 일본

군함도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조선인 강제노역 설명 여전히 미흡

올해 9월 하순 도쿄 서쪽 시즈오카현 이즈반도를 찾았다가 이즈노쿠니시에 들렀다. 도시 명칭도 생소한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나라야마 반사로(反射爐)’가 있다. 나라야마는 지명이고, 반사로는 광석을 제련하거나 금속을 녹이는데 사용하는 용광로를 뜻한다.

1857년 11월에 완공된 나라야마 반사로는 현재 건축물 2동이 직각을 이루며 서 있다. 각각의 반사로에는 길쭉한 굴뚝 2개가 솟아 있으며, 전체 높이는 약 15.7m이다. 나라야마 반사로에서는 대포를 만들었고, 완성된 제품은 인접한 강을 따라 운반됐다. 반사로 활용 시기는 매우 짧았던 듯하다. 이즈노쿠니시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1860년에 대포를 생산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나라야마 반사로를 굳이 찾아간 것은 이곳이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유산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일본에 세워진 중공업 관련 시설 23개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규슈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고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일본 정부는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세웠고, 전시에서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조선인 피해 사실 추가? 전시관 예약도 안 돼

나라야마 반사로는 한국사에서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운영돼 조선인 강제노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궁금했다. 실제 살펴본 결과는 예상과 일치했다. 근대 산업 유산의 ‘밝은 면’만 강



1

1.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현판



2

2.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군함도



3

4

- 3. 일본 훈슈 중부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에 있는 '나라야마 반사로'의 지난 9월 30일 모습
- 4. '나라야마 반사로' 옆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안내판

조됐을 뿐, '어두운 면'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반사로 옆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일본은 서양이 아닌 나라들 가운데 최초로 산업혁명의 물결을 수용해 50년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신들의 손으로 산업화를 성취했다"는 문장과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산업화의 국면을 증언하는 유산군(群)"이라는 표현 등 긍정적 가치를 담은 내용만 있었다. 2021년 일본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몇 가지 추가적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새로운 증언 등을 포함한 추가 연구,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은 일본 조치로 세계유산위원회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했고, 한일 관계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산케이신문은 산업유산정보센터가 1941년 9월~1945년 8월에 군함도에서 탄광 사고로 인해 조선인으로 추정되는 15명을 포함해 44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시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태평양전쟁 시기에 탄광 내 작업 내용과 위생 상태 등을 적은 기록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오사카 인근 효고현 조선소에서 근무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받은 굵어 봉투 40점을 입수해 복제품을 전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굵어 봉투를 받은 노동자가 일했다는 효고현 조선소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아니다. 아울러 산케이가 전시에 추가됐다고 강조한 '군함도 내 조선인 사망' 관련 내용은 '조선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이러한 전시물은 도리어 '조선인이 일제 치하에서 일본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는 일본 우익의 논리만 강화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전시 내용이 보강됐다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는 9월 25일부터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예약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다"며 "직접 찾아와도 전시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내부 전시물 문제는 아니다"라며 "관람 재개 시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보언론 "자국 역사관에 구애되지 말라" 일침

반면 진보 성향 일간지 도쿄신문은 10월 2일 사설에서 굵씹어 불 만한 쓴소리를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9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대해 "일본의 대응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을 주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국의 역사관에만 구애된다면 국제적인 이해를 얻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정중하게 설명과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상현 연합뉴스 일본 도쿄 특파원

전국동포총연합회 12월 17일 발대식... 김호림 초대 총회장 취임

재한 중국 동포단체인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는 오는 12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SK리더스뷰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중국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 이들이 2003년 설립한 단체인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가 전국동포총연합회로 단체 명칭을 바꾸고 개최하는 첫 행사다.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는 동포 1세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20년간 한국에 뿌리를 내린 중국동포들의 삶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국동포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단체 이름을 변경했다. 발대식에서는 김호림 초대 총회장의 취임식도 진행된다. 김 총회장은 지난 7월 말 각 지부와 지회 회장 등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총회장에 선출됐다.



김호림 초대 전국동포총연합회장

전쟁 장기화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광주시 피란 고려인들

광주시 고려인마을에서 지내온 우크라이나 피란민 일부가 전쟁의 장기화 국면에 삶의 터전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피란민 박어릭(72) 씨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고향 마을을 찾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머문 고려인마을을 떠났다. 박 씨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죽어도 고향에서 죽겠다'는 뜻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의 고향 마을이 수복됐다는 소식도 박 씨의 결심을 굳히게 했다. 전쟁이 나자 박 씨는 아내와 함께 폴란드를 거쳐 지난해 4월 광주 고려인마을에 도착했다. 부부는 이후 극심한 향수병에 시달렸다. 박 씨의 아내는 우크라이나와 한 걸음이라도 가까운 독일에 사는 큰딸을 찾아서 남편보다 먼저 출국했다.

독일의 큰딸 집에 머무는 박 씨의 아내도 남편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박 씨 부부를 포함한 피란민 7명이 최근 잇달아 우크라이나 귀향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고려인마을이 모든 피란민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기



광주시 고려인마을 협동농장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한 고려인 피란민이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

때문에 귀향한 이들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고려인마을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올해 7월까지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동포나 그 가족 등 876명의 한국행을 도왔다.

미얀마한인회, 아웅산 테러범 검거 기여 미얀마인에 감사장

아웅산 테러 40주년을 맞아 미얀마한인회가 당시 테러범 검거에 기여한 미얀마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미얀마한인회는 10월 10일 최대 도시 양곤의 한 한식당에서 아웅산 테러범 검거를 도운 현지 주민 도예예(80) 씨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아웅산 테러는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이 저지른 사건이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북한 요원들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폭발해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한국 정부 인사와 취재진 등 2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당시 북한 테러범들은 두 개조로 나눠 도주했다. 신기철과 강민철은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되거나 검거됐고, 김진수는 도주 중



아웅산 테러범 검거를 도운 도예예 씨(가운데)가 감사장을 받는 모습

미얀마인들의 신고와 저지로 검거됐다. 양곤 강변 마을에 남편과 살았다는 도예예 씨는 “40년 전 사건이지만 또렷하게 기억한다. 10월 9일 테러 소식은 우리 마을에도 전파돼 있었는데 다음 날 오후 9시쯤 동네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남편의 만류에도 밖으로 나가보니 한 남자(김진수)가 강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성호 미얀마 한인회 명예회장은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는데 전 세계의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건을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로마한국수녀연합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재로마한국수녀연합회(회장 김혜운)가 설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주교황청 한국 대사관이 연합회와 공동으로 10월 22일(현지시간) 로마에 있는 한인 신학원 성당에서 이를 기념하는 미사와 축하 리셉션을 개최했다. 기념 미사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참석차 로마에 체류 중인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집전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연합회 소속 한국 수녀, 외국인 수도자, 한국 신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로마한국수녀연합회는 2003년 당시 유학하는 한국 수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대 회장인 장항주 아욱실리아 수녀(살레시오 수녀회)의 노력으로 발족했다. 현재는 교황청 성직자부에서 근무하는 김혜운 베아트릭스 수녀(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내에는 한국 수녀 99명이 체류 중이다.

김혜운 회장은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교육받고 수혜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가르쳐야 하고, 돌봐줘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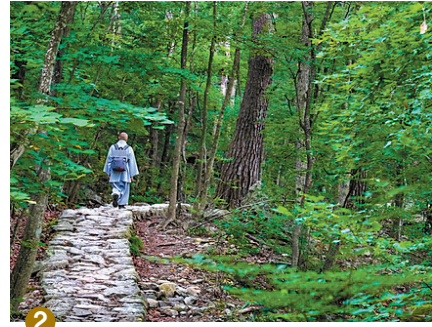
재로마한국수녀연합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중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며 “그만큼 책임이 커졌다. 오늘 행사가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한국 수녀들이 다른 나라 수녀들의 3~5배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다”며 “한분한분의 공헌과 봉사가 세계 교회 전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



2



3

웅장한 산 · 보석 같은 암자... 내설악과 오세암 남한 제일 명산 설악산에 안긴 산사(山寺)와 암자들

불교 개혁가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은 출가한 지 10여 년 되던 1917년 12월 깊은 밤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오세암에서 참선하던 중 바람에 물건이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한순간에 득도했다고 전해진다.

남한 제일의 명산 설악산이 품은 대표적 사찰 백담사의 부속 암자인 오세암은 백담사에서 6km가량 더 들어간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다. 오세암은 한국 산악 비경의 최고봉을 이루는 공룡능선으로 이어지는 마등령을 머리에 이고, 웅혼한 기상을 내뿜는 용마장성과 만경대를 호령하듯 내다보고 있다.

백담사와 오세암은 만해에게 정신적 고향이었다.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그는 17세에 설악산에 들어가 오세암에서 머슴으로 일했다. 1905년 백담사에서 출가한 뒤 1910년 불교개혁이론 서적으로 지금도 유명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선생은 강직했다. 최남선 등 친일 변절자들을 면전에서 꾸짖고, 옥살이 중 나약한 모습을 보이

는 감방 내 독립운동 동지들에게 똥물 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남쪽의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기 싫다며 집을 북향으로 앉혔다.

만해 한용운 등 역사 속 거인들이 머문 오세암

만해에 앞서 오세암에 머문 거인은 더 있었다. 조선 초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세상을 등졌던 생육신 중 한 사람이었던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은 1455년쯤부터 오랫동안 오세암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다. '김시습전'을 썼던 율곡 이이(1536~1584)는 선생을 그를 일컬어 "명성이 일찍부터 높았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도피해 마음으로는 유교를 숭상하고 행동은 불교를 따랐다"고 평했다. 다섯 살에 세종으로부터 천재로 인정받았던 김시습은 '오세신동'으로 불렸는데 오세암의 이름이 그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송유역불 정책으로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시대에 일시적이거나 불교 부흥을 이끌었던 보우 선사(1509~1565)도 오세암에서 수도했다. 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오세암에는 큰 인물들이 체류

하거나 거쳐 갔지만, 산속 깊숙이 숨은 이 암자가 현대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아동문학가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 과 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만화영화 덕분이라고 한다.

등산객 부르는 공룡능선... 간절함의 표상 봉정암

오세암은 백담사에서 마등령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있다. 등산객을 매혹하는 설악산 공룡능선은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분수령인 마등령에서 무너미 고개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5km가량 능선을 일컫는다. 공룡 등뼈를 연상시킬 만큼 바위 봉우리들이 거칠고 뾰족뾰족 수직으로 높이 솟아 숙련된 산악인들이 아니면 오르기 어렵다. 이 능선에 올라 바라보는 경치는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해 등정은 산악인의 '로망' 으로 꼽힌다.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인 봉정암은 국내 사찰 중 가장 높은 곳(해발 1천244m)에 자리 잡고 있다.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이 굴기한 산중에 자리한 봉정암은 백담사에서 바로 가거나 오세암을 거쳐서 갈 수 있는데, 가파른 경사로 인해 산행길이 몹시 힘들다. 달기 어려운 곳일수록 이르고자 하는 집념은 강해지는가. 평생에 한 번은 가야 할 순례지로 봉정암을 꼽는 불자가 적지 않다.

설악산의 삼보(三寶) 백담사·오세암·봉정암

오세암과 봉정암을 관할하는 본 사찰이 백담사다. 백담사 소속

암자 중 영시암(永矢庵)도 내설악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조선 후기 최고 학자로 추앙되는 김창흡(1653~1722)이 창건해 영원한 은거를 맹세했던 곳이다. '영시' 는 시위를 떠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화살을 뜻한다. 나그네에게 발걸음을 멈추고 절집 뒷마루에 걸터앉아 허공에 이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듯 영시암에서 흘러나오는 염불은 그윽하게 설악에 울려 퍼진다.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으로 인해 설악산은 삼보(三寶)를 갖췄다는 신앙적 믿음이 생겼다. 삼보란 부처, 부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인 승가를 지칭한다. 백담사에는 조계종 승려 교육기관인 기본선원이 있다. 봉정암의 부처 진신사리, 백담사 선원, 오세암 팔만대장경이 삼보를 이루는 셈이다.

영시암 앞을 흐르는 수령동 계곡은 백담사 앞을 지나며 백담계곡을 형성한다. 목조아미타불, 백담계곡에 걸쳐진 수심교, 만해기념관은 안 보고 지나치면 아까운 백담사의 보물들이다.

백담사는 30여 년 전만 해도 일반인이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다. 계곡 입구에서 8km를 걸어 들어가는 오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백담사의 방문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1988년부터 3년간 이곳에서 정치적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절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후 셔틀버스가 다니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보행자용 데크 길이 놓이고 차도에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계곡을 감상하며 걷기가 좋아졌다. [\[장\]](#)



1.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에 자리 잡은 오세암
2. 백담사에서 오세암 가는 길
3. 오세암 앞 한용운 흉상과 그의 시비(詩碑)
4. 설악산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을 붉게 물들인 단풍

재외동포청-뱅크, '세계 10위 경제국' 한국 홍보 영상 재외동포에 배포

재외동포청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최근 전 세계 재외동포에 배포했다. '전 세계 교과서에 수록되는 이 나라의 발전상, 이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사회와 차세대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5분 1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지난 9월 반크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체결한 '차세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알리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하나로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1960년 한국은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지만, 2019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는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성장했다"며 "2023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세계 2차대전 후 독립한 80여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이자 서구 선진국이 300여년 걸쳐 이룩한 성취를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한다.



반크 재외동포청과 손잡고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해 제작, SNS에 배포한 영상의 첫 장면

영상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미디어에 한국의 대중문화 스타들이 표지 모델로 등장한 사례, 2023년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세계인이 1억7천만명에 달한다는 통계,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가 750만명임을 알려준다.

조국 근대화 공헌한 '파독 근로 60주년 사진전' 개최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에 공헌한 파독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사진전을 열었다. 재외동포청은 10월 5~9일 닷새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사진전'이란 제목의 사진전을 개최했다.

한국 정부는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광부 7천936명, 1966년 1월 29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간호사 1만1천57명을 독일에 파견했다. 당시 파독 근로자들이 송금한 외화는 산업화의 성장돈으로 쓰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진전은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의 협력을 받아서 파독의 배경과 근로환경 등 이들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사진과 영상을 소개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파독 근로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10월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의 테이프커팅 장면

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라고 소개했다.

재외동포에게 비대면 ·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외동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비대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11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간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국내 민원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지에서 불필요한 국내 휴대 전화 가입유지를 하거나 국내 신용카드 보유, 또는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방법으로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들 모두 내국민 기준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재외동포가 매년 8만여건에 달하며, 이를 위한 교통 · 숙박비와 국내 휴대전화 가입 유지비 등으로 98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 설치 · 운영,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 확인을 위한 법 · 제도 마련, 신원확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오른쪽)과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월 2일 인천시 연수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업무협약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법의 안정성 ·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지속해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전자여권과 카카오 · 네이버 등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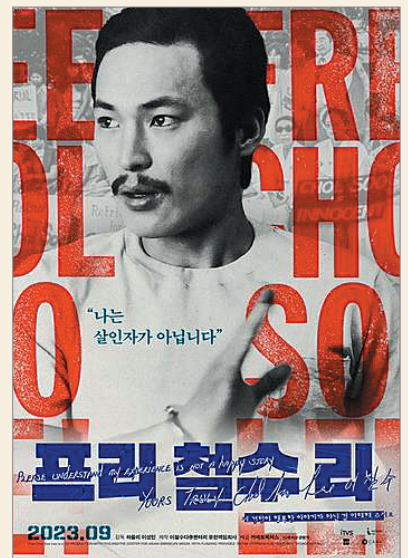
재외동포청 추천 영화



프리 철수 리(Free Chol Soo Lee)

줄리 하 · 유진 이 감독 / 이철수다큐멘터리 유한책임회사 제작

탕! 탕! 탕! 1973년 6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거리 한복판에서 중국인 갱단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다. 닷새 후 한 동양인 청년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다. 이름 '철수 리'로 21살의 한인 이민자였다. 동양인 외모를 구별 못 하는 백인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철수는 곧장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대로 문힐 뻔했던 사건은 한 기자의 심층 보도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한인 최초의 미국 주류 신문사 기자였던 이경원은 차이나타운 취재 중 우연히 이철수 사건을 접하고, 엉터리 재판 과정을 폭로한다. 이철수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며 한인 이민 사회와 종교계가 들끓고, 재심을 요구하는 구명 운동이 시작된다. '프리 철수 리' 운동이 아시아아메리칸 사회를 뒤흔들며 빠르게 번져가던 중, 교도소 안 이철수는 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 진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10년의 재판,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철수의 나머지 삶의 극적 반전을 실감나게 그리는 영화다.





종이문화재단-중국 선양한국국제학교 ‘한인 차세대 육성’ 업무협약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이사장 노영혜)은 한인 차세대 육성을 위해 중국 선양한국국제학교(교장 김상헌)와 ‘창의·예술·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에 자리한 선양한국국제학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한국 교육부 인정 정규 재외교육기관이다.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방문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역량 증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교육용 콘텐츠 및 기자재 공동 활용, 창의·예술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등에서 협력한다.

월드옥타 브리즈번 지회, 대전지역 기업 호주 진출 돕는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브리즈번 지회(지회장 정상국)가 대전 지역의 기업들의 브리즈번 등 호주 진출 지원에 앞장선다. 이동완 브리즈번 지회 사무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지회는 10월 13일(현지시간) 브리즈번에서 대전경제사절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대전-브리즈번 기업 간 수출입 기회 모색, 해외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과의 만남, 퀸즐랜드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과 계룡건설을 포함한 대전지역 2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하와이 호놀룰루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평화·번영 지켜야”

주호놀룰루 한국총영사관이 10월 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퍼시픽클럽에서 국경일 및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호놀룰루 주재 외교단, 한국전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후손, 한인 동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서영 총영사는 마우이 산불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제한한 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자 민주국가가 된 것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기초로 평화를 유지하며 안정 속에서 번영을 이뤄왔기 때문”이라며 한국전 참전용사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시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와 한국 간의 신뢰는 어려운 순간 더욱 빛을 발한다”며 “최근 마우이 산불 대응에 한국 정부와 한인 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려인 동포 모여라”... 경기도 안산시 ‘어울림하마당’ 열려

국내에 흩어져있는 고려인 동포들이 한데 모여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고려인지원단체 너머는 대한고려인협회,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인천고려인문화원과 함께 10월 29일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어울림하마당’을 개최했다. 이는 고려인 강제 이주와 항일 독립 투쟁 역사를 기념하는 ‘제7회 고려아리랑’ 행사의 하나로, 앞서 9월 22일에는 기념식과 토론회가 진행됐다. 고려인 강제 이주사를 담은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비롯해 고려인 어린이 그림대회, 고려인 재능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고려인 강제 이주 및 한인 이주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도 열렸는데 고려인 청소년들이 안내와 해설을 맡았다.



재일동포 차세대의 민족 정체성 함양 방안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재일동포 수는 2023년 기준 8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다 한국에 루츠(roots, 뿌리)를 가진 '더블'(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난 자녀들)이 30만 명 등 정도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재일동포는 계속 감소 추세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감소,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에 따른 정체성 약화 등 재일동포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정체성 함양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때 재일동포의 일본 귀화는 민족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돼 한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후쿠오카 야스노리와 김영수(福岡安則·金明秀, 1997), 야마와키 게이조(山脇啓造, 1999)는 재일동포 차세대 정체성에 대해 '귀화 지향'과 '준(準) 일본인', '한국계 일본인'(Korean Japanese)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올해 8월 재일동포 차세대 정체성의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함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사카 현지를 방문했다. 그 결과 재일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 방안은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접할 기회와 장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 역사 현장 체험을 통한 정체성의 재인식과 함양이다. 오사카코리야타운 역사자료관의 고정자 관장은 "재일동포 사회는 기존 일본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능가하는 한류 파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차세대 정체성 함양의 관건이다. 과거 재일동포 1세대들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본 사회의 차별에 당당히 맞서왔으며 2~3세는 약해진 정체성의 회복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일동포 3세 이상은 기존의 사고에 크게 구속되지 않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역사자료관은 재일동포 차세대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존재를 확인시키는 장소이다"라고 말했다.

둘째, 재일동포 관련 문화축제와 교류 현장을 통한 정체성의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

함양으로 오사카 '왔소' 문화교류협회 박충홍(朴忠弘) 이사장은 재일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대해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루츠를 알고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적은 가변적이어도 루츠와 언어, 문화 등 민족적 요소는 불변한 것이며 노력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국적은 일본인이더라도 축제를 통해 한국인의 루츠와 문화를 꼭 자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소' 축제의 이사장직을 맡아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셋째, 일본 내 한류 문화 인기를 활용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통한 정체성 함양 방안이다. 오사카 호텔 나니와의 박충석 대표는 "일본에서 한류 문화의 인기는 상상 이상으로 한국 자체가 문화 콘텐츠화될 정도다. 문화의 흐름은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기 때문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재일동포 차세대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일 청년문화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재외동포재단이 재일동포 차세대 대상으로 한국어 루츠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구사 능력 23.4% ▲한국 역사 공부 20.9% ▲한국문화 습득 18.8% ▲본명 사용 17.9% ▲국적 유지 16.4% ▲한국계와 결혼 2.5% 등으로 응답하였다. 재일동포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민족단체 활동 간의 차이 분석에서도 민족단체 참여도가 높을수록 민족 정체성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과 단체활동 참여가 정체성 형성과 자기 뿌리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체성을 함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한국계 일본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체성 함양 방안은 언어와 역사, 문화교육의 활성화, 한류와 문화 축제 교류 장소와 기회 제공, 한일 상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한 모국과의 연대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와 ‘2023 코리안 페스티벌-THE NEXT’



‘2023 코리안 페스티벌’ 포스터

재외동포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4박 5일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한다.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현지 주류사회 진출방안 논의 및 토론, 대한민국과 재외 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해외 한국공관의 추천을 받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차세대 동포 91명(21개국)이 참석한다. 대회 기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주류사회 진출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여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또 11월 2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2023 코리안 페스티벌-THE NEXT’를 개최한다. 이 페스티벌은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을 초청해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특별 공연이다. 페스티벌 장면은 녹화돼 12월 9일 밤 11시 10분부터 12시 40분까지 KBS 1TV와 KBS World를 통해 방송된다.

재외동포청장 동정

- 11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업무 협약식 참석
- 11월 13일: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
- 11월 28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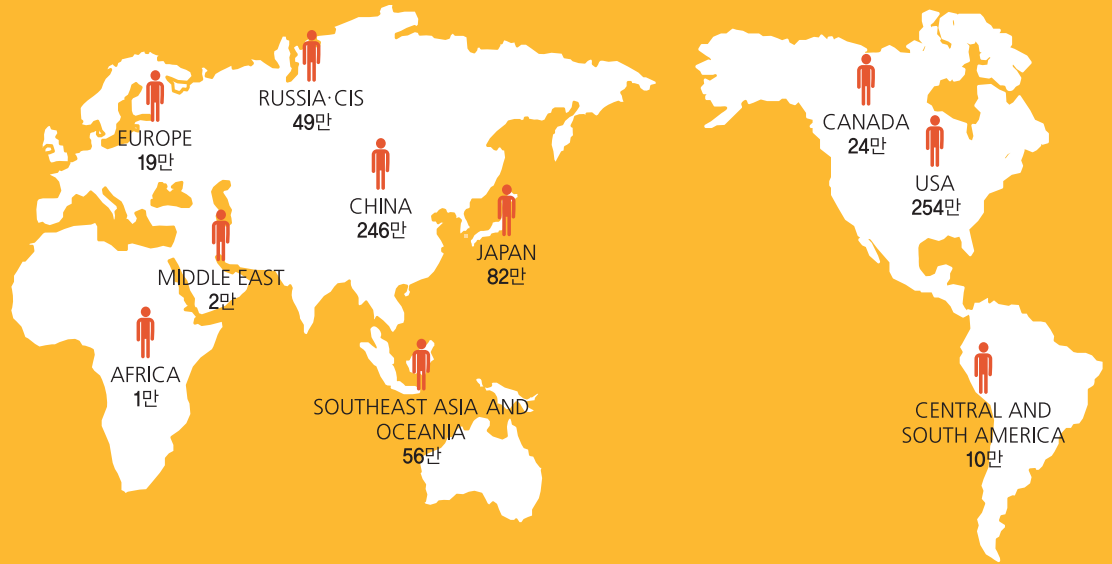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청은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